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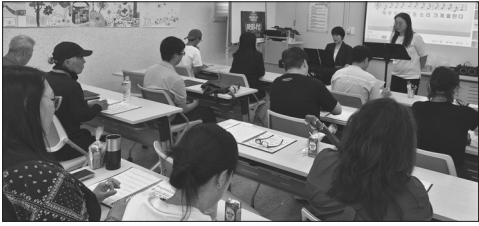


남원 도동동 통장 51명, 반부패 청렴 서약서 서명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정기 통장회의에서 통장 51명 전원이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 다짐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청렴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 통장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직접 서명한 뒤,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챌린지에 함께 했다.

청렴 다짐 챌린지는 통장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렴 관련 문구를 소리 높여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센터 회원 대상 '소리꽃 합창단'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신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등록 회원들이 참여하는 '소리꽃 합창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원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서로 화음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 매주 정기적인 연습을 진행하며 단원들의 자신감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 강희동 정신건강팀장은 "단원들이 노래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지할 것이라며, 이들의 진심 어린 노랫말이 지역사회의 편견을 따뜻한 공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대형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하고 지휘·통제하는 핵심 기구로,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훈련은 통제단 가동 시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지휘소 설치 능력을 향상하고, 운영 인원의 정비 조작 숙련도를 높여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서는 △신규 배부된 지휘 텐트 제한 및 구조 속지 △현장 지휘소 내 통신 및 운영 장비 세팅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강진면 '백련마을, 고맙습니다 한마당' 성료

백련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준공기념... 성과 공유·주민 화합하는 시간 마련

임실군 강진면 백련마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났다.

백련마을은 최근, 마을회관 앞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준공을 기념하는 마을행사인 '백련마을, 고맙습니다 한마당'을 개최하고, 그간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백련마을의 변화는 지난 2023년 서병준 이장과 주민들이 마을을 바꾸겠다는 뜻을 모아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공모 선정 이후 마을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마을 안길과 축대·배수로 정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휴먼케어 등 역량강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준공 기념행사는 성과 공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마을 노인회는 지난 3년간 헌신



/임실=진홍영 기자

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이끈 서병준 이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장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청년회와 주민들은 준공 이후에도 마을 안길과 배수로, 아름답게 조성된 장미·수국 꽃길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약속문'을 낭독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굳은 다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백련마을 입구에는 장미와 수국 등 화려한 꽃길이 조성되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백련마을은 앞으로 '호국원 길목 백련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이미지를 살려,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관 관리와 다채로운 공동체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7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임실군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백련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축하하고,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민들이 축하하며, 임실군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백련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축하하고,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화산농협 임직원,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완주군 화산농협(조합장 김중재)은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화산지역 양파 수확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약 2주 동안 화산농협 임직원 22명은 관내 양파재배농가 현장에서 약 3만 망의 양파 운송을 도왔다.

화산농협은 매년 양파 수확 철 수매 현장에서 농산물 운송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양파 운송을 도와드리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군, 양성평등과 건강한 먹거리 이해교육 추진

부안군은 최근, 부안 남주중학교에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부안군지회(회장 김명옥)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행사를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이해교육과 우리밀 먹거리 교육을 비롯해 합리적 소비 촉진 캠페인, 설문조사, 우리밀 쿠키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성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옥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별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른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소비자교육중앙회 부안군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성평등발전기금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촌 문화 담은 '자이언트 플라워 전시회'... 28일까지 운영

정읍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단장 김성주)이 정읍면 샘샘카페 별관 소품참고에서 대형 꽃 조형물을 선보이는 '자이언트 플라워 전시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성장와 사업 4기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역의 농촌 문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는 볼거리를 발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사람보다 큰 대형 꽃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의 시선을 끈다. 행사장 한편에 꾸며진 사진 촬영 구역은 가족 단위 관람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 구역은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상시 개방돼 주말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전시 개막에 앞서 진행된 '백자 꽃 꾸미기' 무료 체험 행사는 참가자가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



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접수로 이뤄진 해당 체험 행사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추진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농

촌의 문화 자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유희 공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증명했다.

정읍시 또한 농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행 조직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6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66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6-4182  
고창지사 563-6999

일성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0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안 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 활동 전개

부안군 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숙)는 지난 23일 고마제 저수지 일원에서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고마제 저수지를 찾는 방문객과 낚시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수변 주변의 쓰레기 수거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